

대중성 확보, 도식성 극복의 결실

독자 투고

87년 7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정치적인 '유희'를 시발로 노동소설이 대량생산, 광범위하게 유행하게 되면서 노동소설은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리하여 서사장르에서 총체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 장편소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안재성의 '파업'이다. 정치적인 '유희'에서 안재성의 '파업'에 이르는 과정은 변혁기의 한국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한국현대소설의 리얼리즘적 성취를 이뤄낼 수 있을지를 치열한 자기모색의 과정이었고, 그것은 민족문학논쟁에 불을 지름으로써 리얼리즘 논의의 심화·확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노동소설은 도식성과 비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소설의 공통점은 파업현장, 노동현장이 배경이고, 노동자들이 미각각적인 상태로 머물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각성된 노동자로 변모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일반인의 감수성을 고려하지 못했기에 깊은 감동을 주기 힘들다는 비대중성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는 과정에

안재성의 노동소설

'사랑의 조건'

서 민족문학 작가들은 새로운 창작적 시도를 거듭하는데, 그결과로서 우리앞에 놓여진 것이 바로 안재성의 '사랑의 조건'이다. 이 외에도 정치적인 '유희'에 정통한 '열아홉의 절망'에 부르는 사랑노래를 들 수 있겠다. '사랑의 조건'은 제목이 말해주듯 과연 우리시대 사랑이란 무엇이고, 변혁기 한국현실을 살아가

사랑의 조건

는 것이어야 한다는 부르조아적 도덕관념을 가진 어느 계급·계층의 인물속으로 이들을 투영시킨 다해도 그 이야기의 전개양상은 별로 다르지 않는데 문제적인 요소가 있다. 김진숙은 뛰어난 활동가로서 자기삶을 올곧게 개척하고 이것을 남성과 함께하려는 진취적 인물로 애인 김광주를 변호하고 있다. 작가는 '여자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회합에서 심각한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않거나 심지어는 무단으로 조직의 명령에서 이탈한다'는 시각은 여성이 처한 현실적 조건속에서 여성들에게 길들여진 여러 악폐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여성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뛰어난 여성, 그야말로 '슈퍼우먼'이 나타나 여성문제로부터 발

일상에 투영된 역사적 사건 형상화 미약 노동소설의 질적 발전위한 견인차 역할

는 우리개개인의 사랑이 일상적 삶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야하는가를 보여주고자한 뜻깊은 시도의 산물이다. 애정문제를 단순한 개개인의 윤리의식에 기댄 것 아니냐라 다른 모든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상품화되고 있는 면, 특히 문화적 측면을 가감없이 하게 반영한 것으로 뛰어난 자기혁명이 수반되지 않는 한 기존의 보수적 지배이데올로기의 외피를

찾게, 혁명적 연애관의 측면이다. 현 자본주의 사회의 사랑과 결혼이란 여타의 다른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상품화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모든사람들은 진정한 인간관인의 참관과 참사랑을 끊임없이 생활속에서 찾고자한다. 그 대표적 예로서 김진숙과 김광주의 사랑이 제시되는, 사랑과 결혼이란 그레도 때문치않은 어떤 순수

생하는 남녀의 애정문제도 올바른 해결이 보장된다는 식의 안이한 결론을 유추하게 만든다. 또한, 현 한국사회에서 운동가로 불리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히 수배중이거나 서로 다른 사

성 극복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연구자들의 활발한 활동과 노력 속에서 우리는 그같은 전망을 점쳐볼 수 있겠다.

조절이론

조절이론은 마르크스주의의 가치이론을 견지하는 입장과 마르크스, 카렌키, 뒤르케임 등을 접목시키려는 가격론적 입장이 있는데 M. Aglietta, Alan, Lipietz는 전자에 속하고 Boyer를 중심으로 한 파리 수리 경제예측센터(CEPREMAP)그룹은 후자에 속한다. 이 이론은 현대자본주의의 위기의 원인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간의 비대칭성 때문이라 노동조직상의 위기(노동자들의 비조직적 저항으로 인한 생산성의 지속적 하락)에서

찾고 있는데, 조절론자들은 위기를 소위기와 대위기로 구분하고서 소위기를 특정조직체제와 조절양식내에서의 일시적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비해 대위기(구조적 위기)는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이 더이상 사회적 재생산에 조응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직상의 위기에 대처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수요에 대해 생산물을 계속적으로 적응시키고 또한, 임금제약을 유동화시키는 방법(즉, Neo-Fordism)과 노동력의 구상기능을 동원하는 방법(즉, Post-Fordism)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조절이론은 현대자본주의의 위기의 원인을 단순히 잉여가치의 생산과 재생산이라는 경제적 논리가 아닌 총체적 경제·사회적 정치체제안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제제와 위기는 경제적 단계와 경제적 재생산 조건, 사회제도 또는 가치관등에 의해 상이한 형태로 발현되어지고 새로운 축적체제와 이에 조응하는 조절양식의 형성은 사회 정치적 투쟁의 결과라는 제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은 현실상황을 풍물, 춤, 노래, 잡색놀이(연극적 장면) 등으로 드러내어 모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다 컷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재 혁

(대학원 석사과정·경제학)

대우가 있습니다

“스물 한살의 봄은 한번 뿐...”



“아빠의 대학시절은 참 어려웠지. 옷이 마땅치 않아 군복을 물려 입고, 복사기도 없던 시절이었어. 일일이 다 손으로 옮겨 적어야 했으니 말이지. 하지만 낭만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 어찌나 여유로운 생애고 고무줄처럼 걸린 토끼고개에 막걸리를 시켜놓고는, 감동음악을 들으며 토끼고개에 춤도 몰랐지. 너와 함께 교정을 거닐어보니 문득 그때의 젊은 학기가 배어오는 듯 싶구나. 아빠가 열사의 나라 리비아 모래사막을 뚫고, 낯선 땅 나이지리아에서 순한 여자를 이겨내며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도 그때의 젊은 열정과 패기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빠처럼 나에게도 스물 한살의 봄은 영원히 한번 뿐, 항상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맑고 굳은 눈을 가져야. 왜 학문을 하는가. 공부하는 게 뭐가 할 것인가도 많이 생각해 보고... 아빠 때보다 값진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살피워 사회로 나왔으면 좋겠다.”

성실하게 뿌린 씨앗만이 성취의 보람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애써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이 땅의 많은 이들과 함께 —



대우가 있습니다.